

## 덧없는 것을 지속하기 위해: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미술 실천

전민지 (사회적가치연구원 펠로우)

저는 이번 성과발표회를 통해 그간 몸담아 왔던 미술계에서의 활동을 돌이켜 보며, 미술 분야에서의 환경과 생태 문제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물론, 현대미술 작품들은 다양한 사회 이슈 중에서도 환경 문제를 일찍이 포착함으로써 생태와 관련된 문제를 광범위하게 다루어 왔습니다. 예술가들과 기획자들은 여러 전시를 통해 일반 감상자들과 비슷한 문제의식을 폭넓게 공유하였고, 그럼으로써 환경과 인간이 분리 불가능한 관계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재차 강조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다음과 같은 현실적 문제들이 존재합니다.

### ‘전시 쓰레기’는 어디로 가는가? 혹은 어디로 가야 하는가?

전시가 막을 내린 뒤, 공간을 가득 채웠던 선반, 좌대, 의자 등 여러 물품들은 쓸모를 잃게 됩니다. 펠로우십을 시작하기 전, 저는 미술관에서 근무하며 전시가 마무리된 뒤 생겨나는 쓰레기에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전시 이후에는 언제나 대형 폐기물부터 소형 쓰레기까지 크기와 상관없이 재활용되지 않는 물품들이 남곤 하였습니다. 예술 분야 전시의 성격상, 공간에서의 설치와 해체가 반복되는 것은 당연한 과정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아무리 생태 문제를 다루는 작품을 전시하더라도, 문제의식을 공유하는 것만으로는 환경과 관련된 문제를 직접적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특정한 기간 동안 공개되고, 다시 사라지는 전시들은 매번 폐기물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전시를 반복하는 것만으로도 예술은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위와 같은 지점은 예술이 더 이상 ‘덧없는 것’으로 치부되지 않기 위해, 나아가 예술이 그저 ‘덧없는 것’이더라도 중국에는 ‘쓸모있는 것’이 되기 위해 해결이 필요한 사회적 문제입니다. 타 분야의 사회적 실천과 비교했을 때, 이들은 상대적으로 좁은 범주에 머물러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모든 변화는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점에서, 저는 오늘 미술계에서의 다양한 사례를 공유해보고자 합니다.